

새만금 물막이 20년... 이제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도, '새만금 대도약 시대' 선언

핵심 SOC 구축으로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대변신 현대차 투자 결정으로 도민 체감형 경제도약 가속화 수소·로봇 등 핵심전략산업 유치, 백년대계 완성

2006년 4월, 단절되었던 33.9km의 방조제가 하나로 연결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난 지금, 계획으로만 존재했던 새만금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회의 땅'으로 그 모습을 완전히 탈바꿈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막이 공사 20주년을 맞아, 단순한 외형적 성장을 넘어 지형도가 뒤바뀐 새만금의 변화상을 함께, 현대차 등 대기업의 투자 지원을 발판 삼아 도민이 그 결실을 누리는 '새만금 대도약 시대'를 선언했다.

#20년의 기록, 바다를 땅으로 바꾼 '영토 확장'의 대변화

2006년 물막이 완료 당시 광활한 갯벌이었던 새만금은 지난 20년의 매립 과정을 거치며 대한민국 영토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했다. 현재까지 전체 매립 대상 면적(291km) 중 약 42%에 달하는 용지가 조성되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2배, 축구장 약 1만7,000개 규모의 새로운 국토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개발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민간 주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주

도 매립 대폭 확대와 개발 목표연도의 단축 등을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시켜, 정책적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해 새만금 대도약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과거 위성사진 속 푸른 바다였던 공간은 이제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들어선 국가(단) △스마트 수변도시(수소 AI 시범도시) △광활한 농생명 용지로 채워지며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다. 20년 전 '계획에만 존재하던 땅들이' 이제는 기업들이 앞다퉀 찾는 '실효적 부지'로 완성된 것이다.

#심지형 도로망에서 트라이포트까지... 글로벌 물류 거점의 완성

지형의 변화와 함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만금의 인프라 구축이다. 과거 배를 타고 오가던 현상은 이제 삽자형 내부 간선도로(동서·남북도로)가 완전 개통되며 새만금 어디든 20분 내 연결되는 육상 교통 체계를 갖췄다.

여기에 하늘(국제공항), 바다(신항만), 땅(인입철도)을 잇는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가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의 지형적



위성을 통해 촬영된 2025년 새만금의 모습.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완성도를 더했다. 이러한 인프라의 대변화는 새만금을 단순한 매립지가 아닌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탈바꿈시켰다.

#대통령의 약속과 현대차의 투자... 도민이 체감하는 '새만금'

이러한 물리적 변화는 이제 도민의 삶을 실제적으로 바꾸는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체결한 투자 협약(MOU)은 새

만금이 수소·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거점은 물론,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결정적 변곡점이 되었다.

#지속 가능한 새만금 구현, 기후 변화 등 비점오염원 선제적 차단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매립과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수질 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여 '지속 가능한 새만금'을 구현한다. 향후 새만금유역 내 전반적인 비점오염원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핵심 비점오염원인 가축 분뇨에 대한 집중 관리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선제적인 오염 저감을 나선다.

이를 위해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을 통한 가축 사육 규모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유역 내 5개소에 우선 고체연료화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돈분과 음식물류를 병합 처리하는 통합바이오가스 화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등 비점오염원의 근본적인 차단과 수질 안정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이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20년 전 물막이 공사가 새만금의 시작이었다면, 지금의 핵심 인프라 구축과 대기업 투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100년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바다를 땅으로 바꾼 그 기적의 현상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풍요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01만호기자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 "여성중심플랫폼 건립할 것"



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시장 후보가 익산시 여성 정책을 취업·교육·복지 중심에서 확장한 새로운 개념의 '여성친화도시 2.0' 공약을 제시했다. 여성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복합 공간인 '여성중심플랫폼 익산별채'(가칭)를 건립해 여성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임 후보는 '익산별채'에 대해 "단순한 시설이 아닌 여성의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연결, 삶의 전환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유(Healing)', '연결(Connection)', '전환(Transition)'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독립적이고 안정된 공간에서 개인의 회복과 성장 새로운 관계 형성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별채라는 이름처럼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기반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하나의 대형 거점이 아닌 권역별 분산형 구조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익산시 유유 건물 활용을 경우 초기 시설비 약 3.5억 원, 연간 운영비 약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01만호기자 · 익산=이재춘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 "농어촌기본소득 제도 도입"



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조국혁신당)는 "인구 5만도 무너질 위기에 있는 소멸위기 고창을 되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 고창을 지키기 위한 획기적인 소득기반 정책이 필요하다"며 '소멸위기 고창 살리기 프로젝트' 공약으로, 군민 1인당 연간 500만원 '농어촌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방식은 지역화폐 또는 카드형태를 병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외지 꽃 구입 등으로 비효율 집행되는 지역소멸대응기금 구조조정 △상생협력기금·지역균형발전예산 활용 등 국비로 1,50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제시했다. /01만호기자 · 고창=김영식 기자



도청 앞에 마련된 故 서광석씨 분향소

2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서광석 화물연대 조합원의 분향소가 마련되었다. 이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BGF로지스 전주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건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원천인 OJ (BGF레일)의 무책임한 교섭 회피와 대체수송 강행, 공권력의 대응, 정부와 노동부의 방관이 빚어낸 구조적 참사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분향소에서 헌화를 진행했다. /01만호기자

2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서광석 화물연대 조합원의 분향소가 마련되었다. 이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BGF로지스 전주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건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원천인 OJ (BGF레일)의 무책임한 교섭 회피와 대체수송 강행, 공권력의 대응, 정부와 노동부의 방관이 빚어낸 구조적 참사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분향소에서 헌화를 진행했다. /01만호기자

민주 도당 비례공관위,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결과 발표

광역 4·기초 40명 등 총 44명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보급 이하 전북도당 비례공관위)가 21일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44명의 후보를 확정했다.

전북도당 비례공관위에 따르면 이번 심사를 통해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 4명과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 40명이 선정됐다. 광역의회는 정수 6명, 기초의회는 정수 25명을 기준으로 후보군이 꾸려졌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로는 강정희, 윤혜이(이상 여성), 김동우, 박병철(이상 남성)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관위는 후보자의 경쟁력과 더불어 도민을 위한 봉사정신, 당의 가치와

정체성 구현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별과 분야를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광역 비례대표 선출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되며, 1인 2표제로 여성과 남성 후보에게 각각 1표씩 행사하는 방식이다.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총 14개 시군에서 40명이 확정됐다. 주요 지역별 후보를 보면 전주시는 김수민 송정욱 신재석 유시선 정승인 등 5명이 경선에 나서며, 군산시는 김수정, 김상영, 김명주, 김효신 박귀배 박다혜, 전주시 등 7명이 경쟁한다.

익산시는 이종연, 한명란 2명, 정읍시는 김경란 김정용 이정순 3명, 남원시는 김순복, 전인숙 2명, 김제시는 손정애, 정경원 2명으로 각각 후보가 확정됐다. 완주군은 이미경, 이찬영,

최은규 3명, 진안군은 정점순 한효임 2명, 무주군은 오순덕 1명이다.

또 장수군은 오미은 이미자, 한산미 3명, 임실군은 박귀순 박선옥 서은주, 함순주 4명, 순창군은 한소용 1명, 고창군은 김보영 김순순 최선례, 최은서 4명, 부안군은 임정숙 1명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기초의회 비례대표 선출은 권리당원 50%와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50%를 합산한 선거인단 방식으로 진행된다. 1인 1표제로 투표가 이뤄지며, 단수 후보 지역은 별도 투표 없이 확정된다. 특히 군산·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장수·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 등 복합 선거구는 권리당원과 해당 국회의원 선거구 상무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다. /01만호기자



성준후 전 더불어민주당 임시군수 예비후보가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과정 전반에 걸친 불법·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경선 절차 중단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임실군수 경선 불법 의혹 총체적"

성준후 전 예비후보, 경선 중단·전면 재조사 촉구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임실군수 경선에서 나선한 성준후 전 예비후보가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과정 전반에 걸친 불법·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경선 절차 중단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성 전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사랑하는 임실군민과 당원 동지들에게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현재 임실군수 선거는 단순한 과열 경쟁 수준을 넘어 금품 살포, 여론조작, 불법 선거운동 등 중대한 위법 행위가 난무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의뢰를 한 상태이며, 최근 법원이 입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하면서 사건이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성 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처럼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읍리감찰단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경선을 강행한 것은 사실상 의혹을 묵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경선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윤리감찰을 통해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01만호기자

또한 특정 후보와 관련된 농지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도 상세히 언급했다.

성 전 후보는 "지난 4월 18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후보 배우자가 전주시 완산구 일대 약 3,700여 m²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면서 '자영 목적'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임대차 신고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농지 관련 증명 발급조차 어려운 상태라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 직불금이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실제 농업 경영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금품 제공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19일 오후 임실군 삼계면 인근에서 특정 후보 측 선거운동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역 주민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려 한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진과 녹취 파일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성 전 후보는 "모든 의혹을 해소한 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로 경선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1만호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